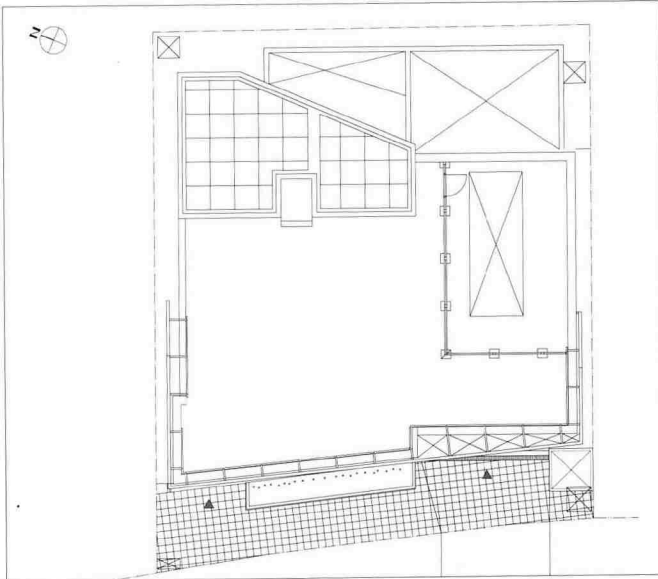


액추얼리 빌딩 & 카페

Actually Building & Caf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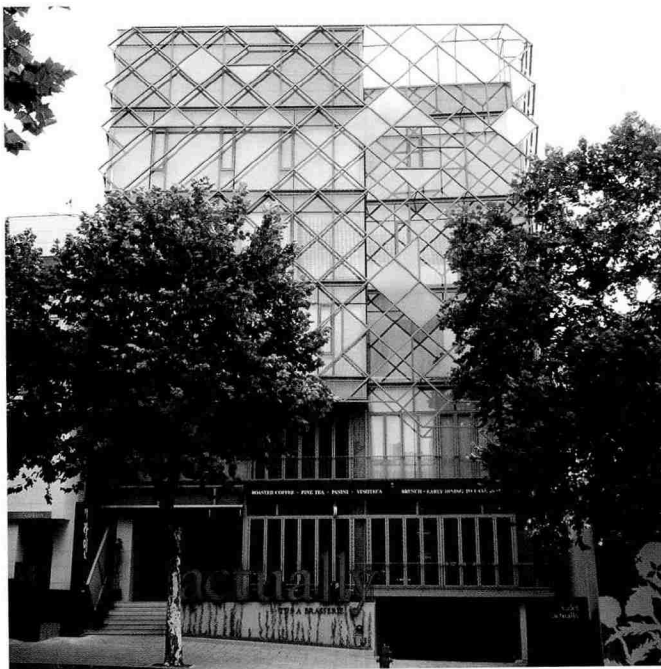
● 배치도

● 건축개요



0 1 2 3 4m

- 대지위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8-1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 주요용도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 389.6㎡
- 건축면적 226.88㎡
- 연면적 1,349.24㎡
- 건폐율 58.23%
- 용적률 286.21%
-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 구조 철골콘크리트조
- 내부마감 THK디렉스타일, 우레탄도장, 세라민페인트, 라임스톤, 외·내부용수성페인트
- 외부마감 T120 AL, BAR, T16 투명복층유리
- 설계담당 이성란, 최태현, 김윤정, 이명
- 설비/전기 (주)대오설비
-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_Studio Zip, 박찬우)
- 구조설계 (주)하모니구조
- 시공사 (주)하우텍C&R건설



- Location 118-1,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Korea
- Site area 389.6㎡
- Bldg area 226.88㎡
- Gross floor area 1,349.24㎡
- Bldg coverage ratio 58.23%
- Gross floor ratio 286.21%
- Structure R,C
- Bldg. Scale B1, F6

1 2
1. 정면 2. 6층 뷰



알고 지내던 젊은 부부가 청담동에 새로 산 건물을 레노베이션 하고 싶다고 했다. 명품브랜드샵이 즐비한 거리에 검은 화강석과 불투명흰색유리로 덮여 있는 기존건물은 답답하게 보였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로데오 거리를 향해 건물 내부에서 열린 view를 가지게 하는 것 이었고 외부에서도 진입하는 부분을 크게 확장하여 내,외부 상호교류가 있게 하는 것 이었다. 기존 마감재를 다 철거하고 투명유리를 전체 설치한 후 정형적인 패턴의 structure를 덧대서 전층 내부에서 view를 확보하면서 외부는 역동적인 입면을 추구하였다. 정형적인 사선의 알루미늄 structure를 전체적으로 덮고 종이 접기한 육면체를 몇 군데 뿌린 듯한 패턴으로 건물 전면과 좌우를 감싸듯이 덧댔다. 이 더블스킨은 입면변화와 더불어 내부에서의 프롬나드에 의한 다양한 시선 각도와 햇빛에 의하여 다양한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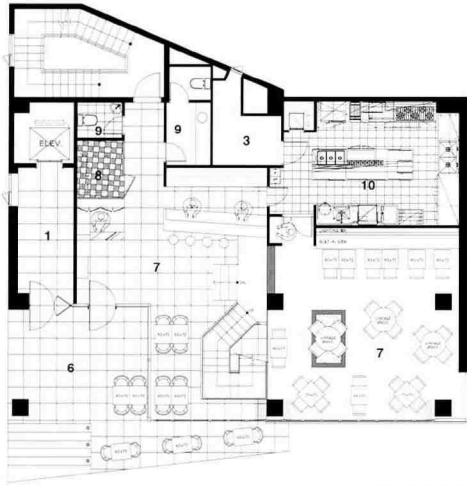
가 연출되고 있다.

건축주가 사용할 Office/Gallery는 인테리어를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건물 설계안이 마음에 들어 이 건물에 직접 카페를 만들고 싶다고 하여 2개층 카페와 지하 직원사무실까지 디자인하게 되었다.

도로보다 1.2미터 높은 건물로비와 카페출입구는 테라스를 통해 진입하게 되고 테라스에는 "actually" 라는 글자가 난간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공간과 내부가 연결된다. 2층카페와 3층 사이 계단실을 크게 오픈 하여 3층으로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나뉘는 공간과 외부가 오버랩 되고 더블스킨 또한 오버랩 되면서 수평, 수직간의 변화 있는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 1. 2층 바/홀
- 2. 내부계단
- 3. 수출입구
- 4. 3층 오픈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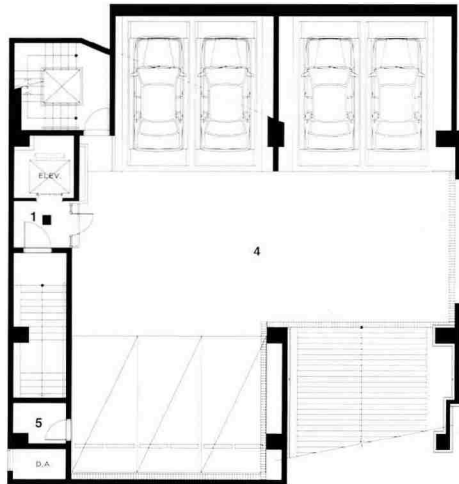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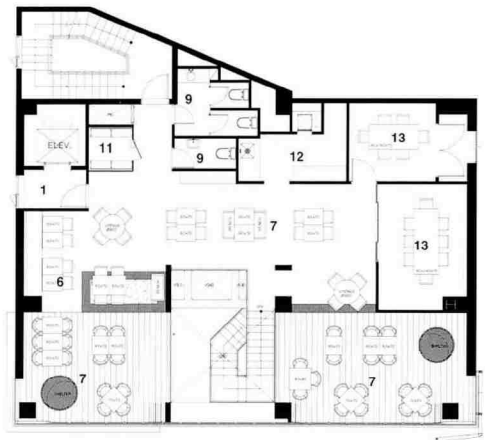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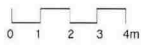
6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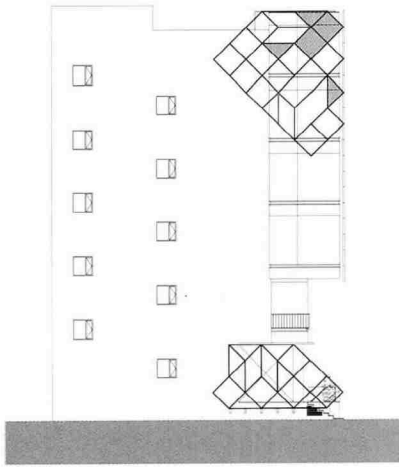


- | | | | |
|---------------|-----------|----------|----------|
| 01. 엘리베이터 실 | 05. 경비실 | 09. 화장실 | 13. 로비 |
| 02. 갤러리 겸 사무실 | 06. 주차입구 | 10. 주방 | 14. 로비 |
| 03. 창고 | 07. 홀 | 11. 와인셀러 | 15. 다용도실 |
| 04. 주차장 | 08. 로스팅 룸 | 12. 보조주방 | 16. 회의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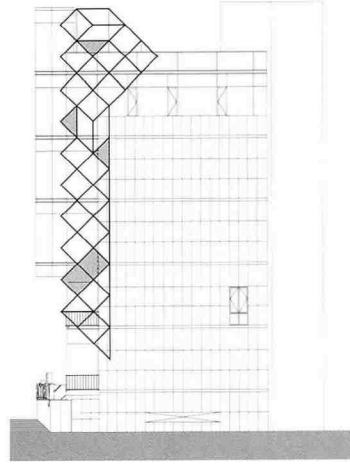
그림 수집을 좋아하는 건축주의 6층 Office/Gallery는 실험적이면서도 편안한 공간을 원했기에 벽돌, 구로철판, 미장바닥, 망입유리, 노출빔 등을 사용한 약간의 거친듯한 공간이 되었다. 오후 햇살에 더블스킨의 그림자가 내부까지 드리워지면서 책상 위와 바닥에 재미있는 패턴이 그려지고, 또 늦은 밤이 되면 건너편 건물의 현란한 조명이 내부로 들어 오는 듯 하다.

작년 초에 시작하여 어렵게 심의 받은 안을 건축주를 설득하여 스스로 몇 차례 바꾸고, 새로운 더블스킨을 시도를 해보면서 시공사의 기술부족으로 직원들과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건물이 완성되고 밝은 얼굴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또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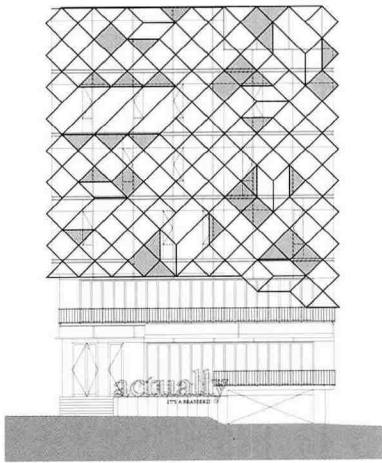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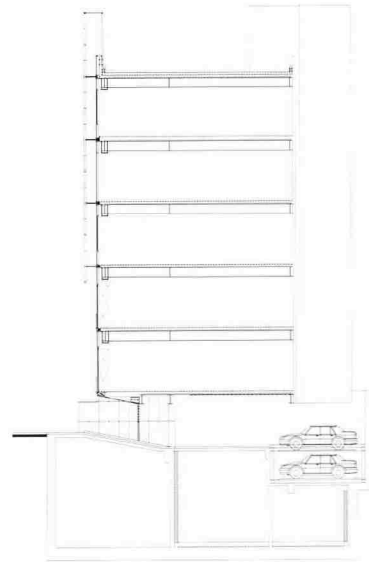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단면도



- 1. 2층 비/계산대
- 2. 2층 좌측출

- 3. 3층 좌측출
- 4. 3층 우측출
- 5. 6. 6층 사무실과 갤러리
- 7. 6층 컨퍼런스 룸



